대학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방안

백 일 우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각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률적인 수준으로 등록금(여기에서는 등록금 및 수업료를 포함하는 납입금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로 함)을 책정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등록금 산정방식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다. 즉,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무시된 획일적인 등록금의 책정은 교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려는 대학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은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에게도 투자의 비용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을 감수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즉, 비록 특정 대학에서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추가적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질 좋은 교육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졸업 후의 생애소득을 통한 보상이 보장된다면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동기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에게도 대학교육의 질에 따른 등록금의 추가지불에 대한 동기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만약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을 등록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결국 고등교육 시장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비효율은 고등교육 발전에 중요한 저해요인이 되며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부담이 된다.

이 글에서는 등록금 책정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담 주체의 문제를 알아보고, 전형적인 등록금 산정방식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의 질이 반영된 등록금의 합리적 결정 방안 하나를 소개하고 이러한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등록금 부담의 주체

현재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사립대학의 등록금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8). 그런데 최근 정부가 2001년부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학 등록금 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재정적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간략히 알아보자.

1) 정부의 개입

① 사회적 외부효과의 발생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에 정부가 재정적 기여를 하지 않는 나라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거의 모든 나라가 국·공립대학이 무상이거나 사립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등록금을 징수하는 형태를 한 방안으로 취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교육서비스 획득 비용의 일부를 서비스를 받는 학생으로부터 일반 납세자로 이전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이전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학자들은 통상적으로 경제적 외부효과(externality)의 발생을 우선으로 꼽고 있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경제적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경제적 후생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긍정적 외부효과라 하고 그 반대 현상을 부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그런데 바로 고등교육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교육경제학자들은 고등교육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회의적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 투자의 상당한 열매는 결국 투자자 개인에게 일차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고등교육이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는 주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집단에 제한적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면 국가가 국·공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행위는 명분이 약하다. 왜냐하면 사립 고등교육기관 출신도 당연히 국·공립 교육기관 출신 못지 않게 사회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② 교육의 부에 대한 중립성

'교육의 부에 대한 중립성'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교육과 같은 재화는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재화이므로, 이러한 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이미 17세기에 유명한 경제학자 페티(Sir. William Pettty)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Cohn, 1979).

> 대학은 … 공적 부담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학자로서 선발될 수 있으며 특권층 자녀라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형편없는 무리들이 대학에 들어와 빈둥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과는 항상 괴리가 있게 마련이다. 국·공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미 빈곤가정 출신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미 예외는 아니다(서울대학교 학생상담소, 1995).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소득재분배 효과에 역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프리드만 교수 부부는 그의 저서 『선택의 자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Friedman & Friedman, 1980).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처럼 그 효과가 불공평한 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분야에서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을 속여 자기들에게 대대적으로 지출하게 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할 부끄러움도 전혀 모른 채 오히려 자신들은 이기심이 없이 공덕심에 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2) 개인 부담의 강화

인간은 소득과 비교하여 구입비용이 크면 클수록 한 물품에 대한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욱 신중히 그 물품을 사용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만약 고등교육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무상 또는 감축된 비용으로 제공된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을 절약하거나 가능한 최선의 활용을 위한 유인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낮은 수업료는 대학에 들어가서 배우려는 데 관심이 없는 학생들

을 유인하지만, 반면에 더 높은 수업료 부과는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로 하여금 대학진학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교육비 지출을 해야 한다면 대학생들은 교육기회를 보다 많이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수익자 부담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주장된다.

더욱이 고등교육이 각 개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면, 그들은 높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가져다 주는 효과를 개인이 갖게 된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들의 사적 수익이 사회적 수익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 프리드만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Friedman & Friedman, 1980).

고등교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사적 이익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가 보조를 해야만 비로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얻게 되는 수익이 비용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그런 학생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을 것이다.

3. 납입금 책정 방식

최근 납입금 책정방식에 관해서 다양한 모형들이 종합정리되고 있으나(김병주, 1999; 정진환·반상진, 1999), 이 글에서는 〈표〉와 같이 생산비용 접근법, 거시적 소비함수 접근법, 경영정책적 접근법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다.

1) 생산비용 접근

생산비용 접근은 교육재화를 생산·공급하는 학교의 입장에서 최소한 교육재화의 생산비용은 등록금이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생산에 투입된 재화의 품목별 비용을 고려해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교육생산 함수의 개념에 입각하여 생각해 볼 때, 교육서비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물적자본, 그리고 교육보조재 등이 투입되며, 이 때 이러한 투입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주로 교육활동의 투입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산출에 반영시키는 방안이다.

그리고 일단 교육 투입비용이 반영된 기준 등록금 수준이 결정되고 나면, 각 연도의 등록금 수준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경제정책,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학환경 개선의 정도와 대학교육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률에

모 형	결정요인
생 산 비 용 접 근	· 인건비 : 교수수, 교수급여, 직원수, 직원급여 · 운영관리비 : 연 건평, 교육보조재 · 학생경비 : 장학생 비율, 장학금 지급액 · 조정률 : 인건비 상승률, 물가 상승률
거시적 소비함수 접근	· 실질 납입금 수준에 대한 반응 · 가계소득 중 실질 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중 · 1인당 실질국민소득
경 영 정 책 적 접 근	· 경쟁대학의 등록금 · 경쟁대학의 시장점유율

〈표〉 등록금 책정방식

곱해 연동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

2) 거시적 소비함수 접근

한 사회에서 '고등교육이 부에 대한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여부는 우선 개개인의 대학진학 여부가 개인이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 정도로 판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중립성이 확보되었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동등하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 사회가 확실하게 교육의 부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였다면, 각 소득계층별로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같아야 한다.

거시적 소비함수 접근은 그 핵심 모형으로 고등교육 수요모형을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 수요모형의 주된 관심사는 대학진학 여부가 등록금 수준 및 가계실질소득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 때 등록금 수준은 당연히 가계 경제가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 수준선상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소비함수 접근에서는 등록금 변수, 가계실질소득 변수, 또는 두 변수의 비율(즉, 등록금의 가계소득 부담률) 등이 대학진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등록금 책정에 중요시 다루게 된다.

3) 경영정책적 접근

경영정책적 접근이란 경쟁대학의 등록금, 경쟁대학의 교육시장 점유율을 고려해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다분히 전략적인 방법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보다는 등록금 책정과정이 복잡 다양한 미국의 경우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고등교육 서비스 재화가 거래되는 교육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과점시장이라기보다는 독점적 경쟁시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독점적 경쟁시장이란 시장에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다수의 공급자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공급되는 제품들은 적어도 소비자의 견지에서 볼 때 서로 어느 정도의 이질성이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제품의 이질성 때문에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자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 시장 지배력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제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독점적 경쟁체제하에서 각 대학은 교육서비스 특색을 부각시켜 교육서비스 수요자인 학생들에 대한 독점력을 제고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때 등록금 조절을 통한 직접적 가격 경쟁과 함께 새로운 교육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광고 등과 같은 비가격 경쟁도 하게 된다.

4.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등록금 산정방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재정 운영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거나 물가인상을 고려하는 모형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간 정부가 강력한 대학정원 통제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물가인상을 고려해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히 권유해 온 상황하에서, 개별 대학들이 적정 등록금 수준을 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등록금 자율화라는 대세와 함께 교육시

장이 대외에 개방될 때, 기존의 납입금 결정체계는 그 효용성이 감소될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하에 교육서비스의 질도 동시에 반영되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등록금 책정 모형의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한층 증대되고 있다.

1) 만족가격 모형의 적용

만족가격(hedonic price)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소비자의 만족상태를 반영한다'는 의미로서 공리주의 철학의 쾌락주의적 사고를 염두에 두고 붙인 명칭이다. 따라서 어떤 상품이 갖고 있는 속성이 가져다 주는 만족수준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만족가격 분석이란, 효용을 나타내는 특성이나 속성으로 상품을 가치화할 수 있다는 가설에 기초해서, 어떤 상품의 가격을 그 상품의 질 혹은 특성과 관련시켜 분석하는 기법을 일컫는다(Berndt, 1991; Harford & Marcus, 1986; Rosen, 1974).

예를 들어, 현재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적 여건은 각 대학마다 상당히 다르다. 만일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수 1인당 학생수, 교수의 박사학위 소지율 등과 같은 지표들을 가지고 질적 서비스를 평가한다고 하자(백일우, 1997b; U.S.News & World Report, 1998). 그렇다면 자유로운 경쟁하의 교육시장에서 결정된 대학교육 서비스의 가격, 즉 등록금은 당연히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만족가격 모형의 등록금이란 바로 이러한 서비스의 다양한 질적 차이를 잠재적으로 반영한 등록금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은 교육의 질적 요인에 대한 교육 수요자와 교육 공급자간의 만족의 균형을 의미한다.

만족가격 모형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순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질을 반영한 등록금 수준과 교육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요인들의 횡단자료를 각 대학별로 수집한 뒤, 종속변수를 질을 반영한 등록금으로 하고 이러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위에서 예를 든) 질적 요인 변수들로 하여 회귀모형을 선정한 후, 만족가격 회귀식을 추정한다. 이러한 회귀식이란 바로 대학교육의 가격과 질적 특성과의 평균적 관계를 나타낸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를 거쳐 추정된 회귀식에 각 대학들이 갖는 독립변수들의 질적 특성치를 대입하여 등록금의 예측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등록금의 예측치가 바로 각 대학이 가지는 질적 특성들(독립변수의 특성)을 반영한 등록금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 예측치 수준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학간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납입금 차이율을 산정한다. 즉, 어떤 기준 대학의 예측된 등록금을 1.00으로 잡고 그 상대적 비율을 계산하면 된다. 이러한 만족가격 모형을 가지고 1991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납입금의 차이율을 산정한 결과, 가장 낮은 값을 보인 대학을 기준(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들간에는 최대 2배까지 등록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일우·이병식, 1994).

2) 논 의

만족가격 모형이 대학의 질을 반영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더라도 이를 우리 나라에 적용시키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우선 만족가격 모형의 종속변수가 되는 등록금이 우리의 경우 대학간의 교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교육은 정원이 철저히 통제된 채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 정보가 대학교육 서비스의 질을 반영한 경쟁 시장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나라에서 관찰되는 등록금 자료로는 만족가격 모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등록금이 대학교육 서비스의 경쟁적 시장가치를 가장 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만족가격 모형을

추정한 후, 우리의 특성을 대입하여 등록금 예측치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이러한 경우 대학교육의 질이 등록금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 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대한 이견이 클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 교육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만도 하고, 특히 이러한 가정하에 구해진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와 등록금의 예측치가 상당히 합리적이며 실용적이라는 측면에서 등록금 수준 결정의 한 방안으로 적용 가능하다(백일우, 1997a; U.S.News & World Report, 1998).

둘째, 만족가격 모형을 이용해서 각 대학마다 납입금의 예측치가 구해졌다고 하자. 과연 '어떤 대학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추정치가 가장 낮은 대학을 기준 1.00이라고 볼 때, 가장 높은 대학이 2.00으로 나와 2배까지 차등을 둘 수는 있다는 평가가 과연 적절한가?' 라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이 현재 적절한 금액을 받고 있어서, 질이 우수한 대학이 2배 올려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질이 우수한 대학이 적절한 금액을 받고 있어서, 질이 낮은 대학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안 중의 하나는 등록금 예측치 수준이 현행 등록금 수준과 가장 일치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이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대학과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는 방안을 이용한다면 문제점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백일우, 1997b).

셋째, 등록금을 차등화한다고 몇몇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턱없이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함께 다른 대학들도 따라서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진학 적령인구의 감소, 대학교 설립의 증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나면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시장도 소비자의 영향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형태로 변화될 것이고, 현재 그러한 과정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에 교육서비스의 질에 비해 불합리하게 높이 책정된 등록금을 고집하는 대학은 시장의 경쟁기능에 의해 존립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만족가격 분석에 의한 납입금 산정방법은 장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금을 낮추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넷째, 4년제 대학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립대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공립대학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교육기회의 균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만족가격 분석은 사립대학뿐만이 아니고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2001년부터 국립대학도 교육의 질을 고려해 납입금을 차등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백일우·황용석, 1998). 다만 교육기회의 균등은 대학운영의 효율화와 함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난하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주 (1999). 전공별 교육비 차이도 수익률 및 수요탄력성에 근거한 대학등록금의 책정. 『교육행정학연구』, 제17권, pp.207~248.

대학교육협의회 (1998). 대학교육 정보안내. 『대학교육』, 제96권, p.115.

백일우 (1997a). 대학교육의 질을 고려한 등록금 차등화 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제6권, pp.177~202.

백일우 (1997b). 사립대학 교육서비스의 질과 등록금 수준과의 관계. 『고등교육연구』, 제9권, pp.115~130.

백일우, 이범식 (1994). 만족가격모형을 이용한 사립대학 납입금 책정.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권, pp.323~341.

백일우, 황용석 (1998). 국립대학의 질을 고려한 적정 납입금 책정.

「교육학연구」, 제36권, pp.73~91.

서울대학교 학생상담소 (1995). 신입생조사 보고서.

정진환, 반상진 (1999). 대학등록금 책정방법 개혁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17권, pp.283~326.

Berndt, E. R. (1991). *The Practice of Econometrics: Classic and Contemporary*. New York, NY: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Cohn, E. (1979). *The Economics of Education, 2nd ed.* New York, NY: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Friedman, M. & Friedman, R. (1980). *Free to Choose: A Personal Statement*. London: Secker & Warburg.

Harford, J., & Marcus, R. (1986). Tuition and US Private College Characteristics: The Hedonic Approach.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5, pp.415~430.

Rosen, S. M.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pp.34~55.

U.S.News & World Report (1998). *America's Best Colleges*. Washington, DC: Author.

백일우

연세대 교육학과와 경제학과에서 각각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후 동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버클리대학에서 교육경제학 분야를 전공하여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경제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관심 연구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 학교교육의 투자효과 분석 및 현직훈련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세대 교육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저서로 「Learning to Monitor Lifelong Learning」(공저), 논문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수요에 관한 연구", "기업의 현직교육훈련에 있어서 학력간 차별의 크기 추정" 등이 있다.